

제1회 만불사

세미나 : ‘인간의 삶과 죽음의 번뇌’

다례재 : 불보살 및 역대 조사

영산재 : 조상영가 천훈대재



만불산 만불사

www.manbulsa.org

(우) 770-881 경북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산 46 / 대표전화 1600-0101

- 목 차 -

1. 일정표 -----	4
2. 행사 개요 -----	5
3. 행사 소개 -----	7

세미나 : 인간의 삶과 죽음의 번뇌

4. 제1회 만불사 세미나 ‘인간의 삶과 죽음의 번뇌’ -----	11
가. 세미나 일정표 -----	12
나. 세미나 개요 -----	13
다. 우란분절이란? -----	14
라. 요약문	
1) ‘삶과 죽음의 번뇌’ / 정병조 -----	15
2) ‘업과 윤회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허남결 -----	17
3) 요약문 ‘우란분재의 의미와 설행 역사’ / 김상영 -----	19

다례재 : 불보살 및 역대 조사

5. 불보살 역대 조사 다례재 -----	23
가. 삼귀의 -----	24
나. 만불회가 -----	25
다. 반야심경 -----	26
라. 만불회 소개	
1) 만불회 · 만불사는? -----	27
2) 만불회 · 만불사 연혁 -----	32
3) 국내외 성지순례 -----	34

4) 만불사 신도 현황	37
5) 수행 이력	43
마. 봉행사 / 회주 학성 스님	45
바. 상단권공 / 육법공양	49
사. 헌시 ‘다례와 천도의 노래’	52
1) 지은이 소개	53
2) 제불보살님 前	54
3) 역대 조사님 前	55
4) 유주무주 조상님 前	56
5) 사변영가 前	57
6) 사태영가 前	58
7) 참사영가 前	59
8) 민주화운동 희생자 영가 前	60
9) 인간에 의해 희생된 동식물 영가 前	61
10) 살(殺) 처분 동물 영가 前	62
11) 실험용으로 희생된 동물영가 前	63
아. 찬불가	64
자. 사홍서원	69

영산재 : 조상영가 천혼대재

6. 영산재 (조상영가 천혼대재)	71
가. 영산재	72
나. 의상조사 법성계	75

■ 일정표

시 간		프로그램
세미나	13:00 ~ 16:00	제1회 만불사 세미나
	16:00 ~ 17:20	휴식 및 다례재 행사장으로 이동
불보살 역대 조사 다례재	16:50 ~ 17:00	공연 준비
	17:00 ~ 17:30	식전 행사
	17:20 ~ 17:30	회주 스님 / 스님 / 내빈 입장
	17:30 ~ 17:40	타종 / 삼귀의 / 만불회가 / 반야심경 봉송
	17:40 ~ 17:45	만불회 · 만불사 및 다례재 · 천혼대재 소개
	17:45 ~ 17:50	회주 스님 봉행사
	17:50 ~ 18:00	축사 / 내빈 소개
	18:00 ~ 18:30	상단권공 / 천수바라 / 현악 / 현무 / 육법공양
	18:30 ~ 18:40	호국영령, 순국선열, 민주화운동 희생자, 인간에 의해 희생된 동·식물 등에 대한 헌시 낭독 및 묵념
	18:40 ~ 18:55	합창단 / 국악단 / 군악대 공연
	18:55 ~ 19:00	사홍서원
	영산재 (천도재) 1부	19:00 ~ 21:00
휴식	21:00 ~ 21:10	저녁 공양
영산재 (천도재) 2부	21:10 ~ 23:00	대령 - 바라춤 관육 상단불공 - 사라라니춤 법사 법문 중단 불공 - 승무춤 / 학춤 장엄염불 나무아미타불 정근
	23:00 ~ 24:00	법계도 돌기 / 소대 / 회향
철야정진	24:00 ~ 04:00	철야정진기도
새벽예불	04:30 ~ 05:30	새벽 예불 (동참신도 대중 참여)
도량참배/공양	05:30 ~ 09:00	도량 참배 및 아침공양 후 회향

※ 각 프로그램은 사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행사 개요

“모든 유주무주 고훈 극락왕생 기원”

세미나 : 삶과 죽음의 불교적 의미 규명

다례재 : 불보살과 역대 조사 찬탄·공양

영산재 : 사변·참사영가·殺 처분 동물

영천 만불산 만불사(주지 학성 스님)는 우란분절(백중)을 맞아 8월 9일(토) ~ 10일(일) 이틀간 ‘인간의 삶과 죽음의 번뇌’를 주제로 한 ‘제1회 만불사 세미나’와 ‘제1회 불보살 역대 조사 다례재’, ‘영산재(조상영가 천혼대재영산재)’를 봉행합니다.

‘무자비에서 자비로’를 주제로 진행되는 ‘영산재(조상영가 천혼대재)’는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일반적인 우란분절 행사에서 한 걸음 나아가 모든 유주무주(有住無住) 고훈(孤魂)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만불사 대중은 ‘영산재(조상영가 천혼대재)’를 8월 15일 건국 60주년을 맞아 조국과 민족을 위해 숨져간 호국영령, 순국선열, 전몰자,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정신을 계승·승화시키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함으로써 이념과 지역갈등을 뛰어넘는 ‘영·호남 화합의 장’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온갖 전쟁과 사변(事變), 사태(事態)의 와중에 희생된 영가, 종교와 이념의 갈등 속에서 희생된 영가가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력으로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할 것입니다.

이번 ‘영산재(조상영가 천혼대재)’에서 넋을 위로할 ‘유주무주 고훈’은 사람만을 의미

하지는 않습니다. 만불산 대중들은 신약개발을 위해 실험용으로 사용된 동물, 조류독감(AI)·광우병 우려 속에 무참히 땅에 묻힌 닭, 오리, 소, 미각이라는 욕망을 위해 희생된 가축, 인간의 환경 파괴로 소리 없이 사라져간 동·식물 등 사람을 위해 희생된 모든 생명들의 넋 또한 기릴 것입니다. ‘영산재(조상영가 천혼대재)’는 이처럼 못 생명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인류가 풍요롭고 편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만불사 대중은 앞으로도 우란분절을 부모와 조상영가를 비롯한 모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대승보살도 실천의 날로 기릴 것입니다.

이밖에도 만불사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통해 우란분절의 참 의미를 살펴보는 학술세미나를 ‘인간의 생과 사의 번뇌’라는 주제로 열고, 모든 불보살님과 역대 불교 조사들께 귀의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공양하는 전통 헌대의식 ‘불보살 및 역대 조사 다례재’를 봉행합니다. 또한 ‘영산재(조상영가 천혼대재)’에 동참한 불자와 유주무주 고힌들의 위패를 인도 갠지스강으로 모시고 가 소대의식을 갖습니다.

갠지스강은 인도인들의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성지로, 이곳 강물로 목욕을 하면 온갖 죄와 허물이 없어져 몸과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 행사 소개

1. 세미나: ‘인간의 삶과 죽음의 번뇌’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 주관으로 열립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의 번뇌’를 주제로 삶[生]과 죽음[死]에 대한 이해와 천도재를 지내는 의미에 대해 학술적 접근을 시도합니다. 정병조 동국대 교수가 ‘삶과 죽음의 번뇌 - 불교철학의 생사관’을, 허남결 동국대 교수가 ‘업과 윤회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 삶과 죽음의 윤리적 극복 가능성’을,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우란분절의 의미와 설행(設行) 역사’를 발표하고, 윤이흠 서울대 교수, 황순일 동국대 교수, 석길암 동국대 교수가 각각의 주제에 대해 논평합니다.

2. 다례재 : 불·보살 및 역대 조사

불자들의 귀의처인 불보살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온 역대 조사님들에게 귀의(歸依)와 존경,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양하는 의식입니다. 이날 다례재에서는 석가모니불을 비롯한 모든 불보살님과 마하가섭 존자 등 서천(인도) 28조사, 중국 28조사, 한국 21조사께 다례를 올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 청운다례원이 행사를 주관하며, 운문사승각대학 학감 일진 스님이 다례재를 진행합니다. 또한 고규태 시인이 헌시를 낭송합니다.

3. 영산재 : 조상영가 천혼대재

밀양 광제사 어산범패단의 시연으로 영산재가 병행됩니다.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영산회상(靈山會上)’을 재현한다는 의미를 지닌 법회이자, 영산회상을 통해 영가를 발심시켜 부처님께 귀의시킴으로써 극락왕생하게 하는 천도의 식이기도 합니다. 만불사는 영산재를 돌아간 부모와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석

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호국영령, 민주영령, 전쟁·사태·사변의 와중에 희생된 영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로 희생된 영가, 인간에 희생된 동·식물 등 유정무정의 모든 영가들이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는 법석으로 확대해 애국, 애족, 애민의 정신을 계승하고 자비사상과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는 법석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영산재(조상영가 천혼대재) 봉행 대상

1. 조상 영가 - 백중기도 접수자들의 모든 조상 영가
2. 사변 영가 - 호국영령, 한국전쟁,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전쟁 때 희생된 영가
3. 사태 영가 - 제주 4.3사태, 티베트사태 등 각종 사태 때 희생된 영가 등
4. 참사 영가 - 대구지하철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대구가스폭발 참사, 대연각 화재 참사 등 각종 사건·사고로 희생된 영가
5. 민주화운동 희생자 영가 - 4·19 의거, 광주 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진 영가
6. 인간에 희생된 동·식물 영가
7. 살 처분 동물영가 - 조류독감(AI), 광우병, 구제역 등으로 殺처분된 동물
8. 실험용으로 희생된 동물영가 - 쥐, 토끼, 개 등 의학실험용으로 희생된 동물

4. 천혼대재 위패 인도 갠지스강 소대 의식

천혼대재 위패를 인도 갠지스강으로 모시고 가 소대의식을 갖습니다. 갠지스강은 인도인들이 삶과 죽음을 함께하는 성지입니다. 이 강물에 목욕하면 모든 악업을 씻을 수 있으며, 죽은 이의 뼈를 흘려보내면 돌아간 이가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불사는 천혼대재에 동참한 영가와 모든 유주무주 고훈, 동·식물들의 위패를 갠지스강에서 소대함으로써 생명을 가진 모든 중생들이 함께 업보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해탈 세계에 들기를 기원할 것입니다.

5. 삼사순례

천혼대재에 동참하는 전국 경향각지의 불자들을 위해 삼사순례를 봉행합니다. 삼사순례는 서울, 대전, 대구, 구미, 포항, 부산, 울산, 마산·창원, 통영 등에서 출발합니다. 서울과 대전은 합천 해인사 - 영천 만불사 - 영주 부석사를 순례하며, 부산·경남지역은 합천 해인사 - 대구 동화사 - 영천 만불사를, 대구·경북권은 양산 통도사 - 울산 석남사 - 영천 만불사를 각각 순례합니다.

제1회 만불사 세미나
‘인간의 삶과 죽음의 번뇌’

제 1 주제발표

‘삶과 죽음의 번뇌 - 불교철학의 생사관’ / 정병조 (동국대)

제 2 주제발표

‘업과 윤회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 허남결 (동국대)

제 3 주제발표

‘우란분절의 의미와 설행 역사’ / 김상영 (중앙승가대)

주최 : 만불산 만불사

주관 : 한국불교연구원

■ 세미나 일정표

시간	일정	내용
13:00 ~ 13:20	개회식	개회사 :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장)
13:20 ~ 14:00	제1 주제발표 삶과 죽음의 번뇌 - 불교철학의 생사관	발표 :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장) 논평 : 윤이흠 (서울대 교수)
14:00 ~ 14:40	제2 주제발표 업과 윤회사상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인가	발표 : 허남결 (동국대 교수) 논평 : 황순일 (동국대 교수)
14:40 ~ 15:20	제3 주제발표 우란분절의 의미와 설행 (設行) 역사	발표 : 김상영 (승가대 교수) 논평 : 석길암 (금강대 교수)
15:20 ~ 16:00	폐회식	맺음말 :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장) 사홍서원

※ 세미나 일정과 세부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미나 개요

“삶과 죽음의 불교적 의미 고찰”

한국불교연구원과 세미나 개최 ... 우란분절 현대적 의미 규명

영천 만불산 만불사(주지 학성 스님)는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과 함께 ‘인간의 삶과 죽음의 번뇌’를 주제로 8월 9일 만불보전에서 ‘제1회 만불 학술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일반 대중에게 ‘조상을 천도하는 날’ 정도로만 치부돼온 우란분절(백중)의 현대적 의미를 조명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불교적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세미나는 3개 주제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제1 주제 ‘삶과 죽음의 번뇌 - 불교철학의 생사관’은 정병조 원장(동국대 교수)이 발표하며, 윤이흠 서울대 교수가 논평합니다. 제2 주제 ‘업과 윤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은 허남결 동국대 교수가 발표하고 황순일 동국대 교수가 논평합니다. 또 제3 주제 ‘우란분절의 의미와 설행(設行) 역사’는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발표하며, 석길암 금강대 교수가 논평합니다.

발표자들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우란분절을 계기로 죽음에 대한 관점이 해탈의 문제에서 구원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분석하고, 그것이 죽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불교적 관점에서 수용·발전시킨 것임을 규명할 것입니다.

만불사는 한국불교연구원과 함께 불교학 연구 성과를 사회적 현상을 통해 재조명하고, 이를 불자와 일반대중에게 회향하는 학술세미나를 매년 갖기로 했습니다.

■ 우란분절이란?

지옥 떨어진 조상 영혼 구하는 날

우란분절은 불교에서 우란분재(盂蘭盆齋)를 지내는 날을 중국에서 명절화한 것이다. 우란분재는 여름 안거를 끝내고 자자(自恣)를 하는 날인 음력 7월 15일에 지옥에 떨어진 조상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올리는 재이다.

《목련경(目連經)》과 《우란분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지금 살아 있는 부모나 7대의 죽은 부모를 위하여 자자를 끝내고 청정해진 스님들에게 밥 등의 음식과 5가지 과일, 향촉과 의복으로 공양하라고 하였다. 이는 신통력으로 자기 어머니가 아귀(餓鬼) 지옥에서 고통 받는 모습을 본 목건련(目犍連)이 어머니의 구원을 부처에게 청원하여 비롯된 것이다. 이후 불가에서는 자자를 끝내는 날에 우란분재를 올리는 것이 전통이 되었는데, 중국에서는 양(梁) 나라 무제 때 동태사(東泰寺)에서 처음으로 우란분재를 지냈다고 하며, 그후 당나라 초기에 크게 성하다가 점차 민간풍습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행사는 불교가 동아시아적 심성과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죽음에 대한 관점을 해탈의 문제로부터 구원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며, 일반인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불교적 관점에서 수용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요약문

삶과 죽음의 번뇌

- 불교철학의 사생관(死生觀) -

정병조¹⁾

1. 머리 말
2. 죽음에 대한 불교적 견해
 - 1) 석존의 사생관
 - 2) 부파 불교의 견해
 - 3) 라마 불교의 전통
 - 4) 대승불교적 견해
3. 맺는 말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삶의 멍에이다. 죽음의 불안이 가져다주는 암울한 허무의 심연(深淵) 앞에 우리는 좌절한다. 그래서 영생(永生)이라는 믿음으로 그를 극복하려고 한다. 그러나 영생이 혼자만의 안일을 탐하는 경향이라면 그것은 비판되어야 한다. 불교에서는 그와 같은 종교적 집단이기주의를 경계한다. 오히려 죽음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불교는 삶과 죽음을 동일한 수평선상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모든 생명이 인과의 질서 속에 있기 때문이다. 자기부정과 자기헌신이라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서 중생들은 '더불어 사는 존재'를 체득할 수 있다. 그 완성자를 부처라고 말하지만, 모든 생명 속

1) 한국불교연구원장, 동국대학교 교수

에는 이미 그 가능성이 잉태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 글에서는 ‘죽음’에 대한 불교적 입장을 철학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본질적으로 죽음은 형이상학(形而上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경험적일 수밖에 없다. 고래로 인간이 가진 원초적 의문 중의 하나가 ‘삶과 죽음에 대한 번민’이었다. 석존 당시에도 이 문제는 중요한 철학적 이슈의 하나였으며, 또 절대적 타자를 인정하지 않는 불교적 전통 때문에 자칫 불교는 합리적인 내세관을 갖지 못했으리라는 세간의 편견마저 있어 왔다.

하지만 불교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천착해 왔다. 죽음에 대한 원만한 해석이 없을 때, 인간의 삶 또한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죽음에 관한 사색은 교리적 관점에 따라서 혹은 문화적 역사배경에 의해서 수 없이 많은 상이한 견해가 도출되었다.

불교는 관용을 표방하기 때문에 불교의 역사적 전개에 있어서 광범위한 지역적 문화 특성과 정서적 환경요인에 따라 사생관(死生觀)이 다채로운 모습을 띄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특정 교리에 대한 부분적인 논구(論究)만으로 결론을 얻기에는 외연의 범위가 모호해진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철학적 타당성, 즉 불교적 사생관의 합리적 입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론적 교리 위에 역사적인 변용을 읽어내어 그 특질을 추출해 보았다.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은 자력적이기만 해서도 안 되고 타력적이기만 해서도 안 된다. 내세에 대한 확신이라는 면에서는 자력이어야 하지만, 우리의 논리와 한계상황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면에서는 타력이다. 이 자력과 타력의 균형, 조화야말로 불교적 사생관의 키워드인 셈이다.

■ 요약문

업과 윤회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삶과 죽음의 윤리적 극복 가능성-

허 남 결²⁾

I. 머리말

II. 업과 윤회는 숙명론적인가?

III. 업과 윤회는 선악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가?

IV. 업과 윤회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V. 맺음말

- 업과 윤회사상을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업과 윤회의 교설을 그저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겠는가, 아니면 조그만 일에서부터 그것의 윤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금 당장 실천할 것을 발원하겠는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의 형이상학적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대적인 행위원리로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겠는가라는 지적 고민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업(業; karman)과 윤회(輪廻; saṃsāra)란 말을 들으면 곧바로 불교를 떠올릴 정도로 이 두 개념은 불교사상을 특징짓는 핵심요소로 알려져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윤회사상은 무엇보다도 목적지향적인 자기변화의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만하다. 내가 행한 만큼 과실을 얻을 수 있다는 도

2)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덕적 추론방식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현대인들에게도 충분히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업과 윤회의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들, 예컨대 업과 윤회의 형성 배경이나 윤회의 주체 논쟁, 그리고 업과 윤회의 궁극적 지향점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배제하고, 업과 윤회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윤리적 메시지를 던져 줄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고민한 것이다.

업은 곧바로 어떤 형태의 과보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의 도덕적 성품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행위의 속성을 규정할 어떤 잠재적인 힘 (saṃskāras)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혹은 업과 윤회는 그것의 사실여부와는 관계 없이 우리들의 윤리적 사고와 행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점은 자기중심적이고 소비지향적인 현대인들의 윤리적 삶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행위이론인 업과 이에 따른 직, 간접적인 과보를 뜻하는 윤회란 도덕적 사고방식은 단순명료하면서도 우리의 가슴을 직접적으로 파고드는 감동마저 있다. 우리의 현재적 삶이 누가 보더라도 만족스럽다면 죽음의 문제는 이미 극복된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삶의 성적표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업과 윤회의 원리를 사후의 세계까지 확장하지 말고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 곧바로, 시급히 적용해 보자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럴 때 업과 윤회라는 사고방식은 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섭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며 또한 행위의 선택과 그것이 도덕적 성품의 형성에 미치는 결과도 숙연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업력, 이 역동적인 힘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윤리적 인간이 될 수 있다. 업과 윤회에 관한한 우리 불자들은 직관적 사유를 넘어 비판적 사유의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의 여유 역시 누릴 줄 알아야 한다.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들은 업과 윤회가 이 시대에 던지는 윤리적 메시지를 거듭 되새김할 필요가 있다. 업과 윤회는 과거지향적인 숙명론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윤리성을 함축하고 있는 싱싱한 도덕적 에너지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요약문

우란분재의 의미와 設行 역사

김 상 영³⁾

- I. 머 리 말
- II. 『우란분경』 과 우란분재
 - 1. ‘우란분’의 語義
 - 2. 『우란분경』 과 우란분재의 設行
- III. 고려시대의 우란분재
- IV. 조선시대의 우란분재와 백중
 - 1. 우란분재와 백중
 - 2. 조선시대 우란분재의 특성
- V. 맺 음 말

우란분재는 무려 1,500년에 가까운 設行 역사를 지니고 있고, 우란분재라는 이름의 제의가 행해진 기록은 중국 梁 무제 대동 4년(538)에 처음 선보인다. 目連救母說話라든가 우란분재의 의의를 설하고 있는 한역불전으로 『우란분경』 『報恩奉盆經』 『灌臘經』 『정토우란분경』 등 4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우란분재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내용의 연원과 어원적 측면에서 여러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

3)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중국의 우란분재는 도교의 中元節과 함께 융합되면서 점차 중국인 전체가 참여하고 즐기는 민속의 형태로 변화되어 우란분재와 중원절의 습합은 불교와 도교의 습합·변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중국 민속을 창출해내었다. 『우란분경』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우란분재가 처음 설행된 시기는 梁 무제 대동 4년(538)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양 무제 이전에도 우란분재 형식의 의례가 설행되었을 가능성은 높다. 齊와 梁을 거치면서 정착되기 시작한 우란분재는 특히 중국 남부지역에서 성행하고 있었던 듯하다. 宗懔(498-561)이 편찬한 『荊楚歲時記』 등에서 보이듯이 당시 불교인들은 공양을 올리기 위해 쏘를 화려하게 꾸몄을 뿐 아니라 나무, 대나무, 밀랍, 비단 등을 이용하여 갖가지 쏘를 만들기도 하였다. 우란분재가 이미 중국인들 속에서 중요한 불교의례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살필 수 있는 내용이다.

중국에서 시작된 우란분재 행사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에도 전해졌다. 일본은 606년, 657년, 659년의 『일본서기』 기록에 의해 우란분재 설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657년의 기록에서는 ‘設盂蘭盆會’라는 표현이 직접 명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반면 우리나라 우란분재 설행 기록은 다음의 『고려사』 기록이 가장 앞선다. 또한 『대각국사문집』에 실려 있는 蘭盆日燒臂發願疏와 「講蘭盆經發辭」를 통해 12세기 고려 사회에서 행해졌던 우란분재의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 우란분재는 지배세력의 억압으로 인해, 또는 민중의례와의 습합 과정을 통해 우란분재 고유의 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해갔다. 조선초기 『세조실록』 13권에 의하면 1458년 무렵의 우란분재는 도성 안 길거리에서 종종 행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귀족불교였던 고려시대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며, 이것은 곧 조선초기 우란분재가 민중 중심의 제의로 변화해가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더우기 李植, 「國書」에서는 당시 암자에서 행해지던 우란분재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데, 이 무렵 우란분재는 특히 비구니 스님들이 머물고 있는 사찰에서 많이 행해졌다고 한다. 아울러 “지금은 엄금하여 그 풍속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지배세력은 불교계의 우란분재를 금지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 조선중기에 접어들면서 민중들의 제의로 완전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데, 『동국세시기』와 아

올러 柳得恭의 「中元」에서는 우란분재가 불교의례로서의 모습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는 변화를 살필 수 있는 대목을 제시하고 있다.

매년 음력 7월 15일에 봉행되는 盂蘭盆齋는 동북아시아 불교권의 대표적 불교의례 행사로, 장구한 역사만큼이나 우란분재는 각 지역의 문화, 사상 등과 융합되면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모든 문화와 종교 현상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문화와 종교 현상에 담겨 있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다. 지금 한국불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란분재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우란분재 본래의 모습으로부터 상당 부분 이탈되고 말았다고 판단된다.

다례재
불보살 및 역대 조사



만불산 만불사
www.manbulsa.org

■ 의식곡

삼귀의

최영철 작곡

장중하게
p



거룩한 부 - 처님께 귀의합니 다

mp



거룩한 가 - 르침에 귀의합니 다

mf *f* *mp*



거룩한 스 - 님들께 귀의합니 다

■ 의식곡

만불회가

김지건 작사
박범훈 작곡

Andante



1. 비로자나 — 부처님의 — 청정법신이니
 2. 허공중에 — 보배가 — 가득하더니
 3. 평등하고 — 결핍없는 — 마음자리를



만불산 — 만불전에 — 하강하시네
 인연국토 — 이강산에 — 내려주시네
 금강산 — 법기보살 — 일러주시네



은법계유정무정함깨 — 모여 — 서문수보현발드 — 는
 지은인연근기따라복을 — 받나 — 니문수보현계장이 — 함
 선재동자뒤를따라법계를 — 어블국세계이루 — 할리



우리만불회 불수보현발드 — 는우리 — 만불회
 우우리만불회 불수보현계장이 — 함우우리 — 만불회

■ 반야심경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摩訶般若波羅密多心經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건 오온개공도 일체고역
觀自在菩薩 行深般若波羅密多時 照見 五蘊皆空度 一切苦厄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舍利子 色不異空 空不異色 色卽是空 空卽是色 受想行識 亦復如是

사리자 지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시고 공중무색
舍利子 是諸法空相 不生不滅 不垢不淨 不增不減 是故 空中無色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무안계 내지
無受想行識 無眼耳鼻舌身意 無色聲香味觸法 無眼界 乃至

무의식계 무무명 역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무노사진 무고집멸도
無意識界 無無明 亦無無明盡 乃至 無老死 亦無老死盡 無苦集滅道

무지역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고 심무가애
無智亦無得 以無所得故 菩提薩陀依 般若波羅密多 故 心無罣碍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 의반야바라밀다
無罣碍故 無有空怖 遠離顛倒夢想 究竟涅槃 三世諸佛 依般若波羅密多

고득아늑다라삼막삼보리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故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故知 般若波羅密多 是大神呪 是大明呪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 일체고 진실불허 고설 반야바라밀다주
是無上呪 是無等等呪 能除 一切苦 眞實不虛 故說 般若波羅密多呪

즉설주왈,
卽說呪曰,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3번)

『揭諦揭諦 波羅揭諦 波羅僧揭諦 菩提娑婆訶』 (3번)

■ 만불회 · 만불사는?

1. 이념

만불회는 본질[理]과 현상[事]이 둘이 아닌 하나이며, 서로 걸림 없는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존재한다는 ‘화엄사상(華嚴思想)’에 바탕을 두고 설립된 단체입니다. 만불회는 화엄사상에 근거해 ‘이상에도 걸림이 없고 현실에도 걸림이 없는[理事無礙 事事無礙]’ 신행 자세를 견지하며, ‘나도 이로우면서 남도 이로운[自利行 利他行]’ 실천행 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2. 목표

만불회는 ‘화엄만다라 인다라망(因陀羅網)’ 구축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인다라망은 제석천(因陀羅, Indra)의 궁전에 걸려 있는 보배그물[網]입니다. 이 그물에는 마디마다 구슬이 달려 있어 서로를 끝없이 비춘다고 합니다. 만불회는 이 인다라망처럼 차별과 대립을 넘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는 화엄불국토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만불회는 불교인들이 여법(如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과 공간을 확보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불교계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 세계적인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3. 역사

만불회는 1978년 회주 학성 스님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불교운동으로서 ‘만불운동’을 구상하면서 태동합니다. 1981년 만불보전에 모실 만불 부처님 권선을 시작한 만불회는 1987년과 1988년, 1989년 대구, 부산, 서울에 포교원을 잇따라 개원하면서 전국적인 신행단체로 발돋움합니다. 1988년부터 만불산 건립을 위한 국내·외 성지순례를 시작한 만불회는 1989년부터 전국 16개 도시에서 큰스님 초청법회를 병행해 연인원 100만 명을 동원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큰스님 초청법회를 통해 만불운동의 인적 토대를 마련한 만불회는 1991년 경북 영천군 북안면 고지리 일대에 20만평 부지를

확보해 만불산을 개산했습니다. 이듬해인 1992년 만불보전을 기공해 4년 만에 낙성했으며, 2000년에는 극락정도원을 개원했습니다. 1993년 스리랑카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이운해 진신사리를 모신 석탑을 건립한 것을 시작으로 아미타입불(1993), 석조관음보살입상(1994), 만불만석등탑(1994), 아미타영천대불(1999), 황동와불열반상(2000), 황동만불대법종(2001), 붓다가야 인등대탑(2002), 대웅전 삼존불(2005) 등 여러 성보를 조성해 불자들의 신행도량이자 원력도량으로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1~6지역의 극락도량을 순차적으로 개원해 우리나라 장묘문화를 선도해 가고 있으며, 2000년에는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성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종교 연합 화장 장려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999년부터는 만불신문사(1999), 만불출판사(2005)와 MBM 엔터테인먼트(2006), BIC(Buddhism Indranetwork Communication, 2007), 만불TV MBS(2008)를 잇따라 설립, 문화불사에도 힘써왔습니다. 특히 2005년 6회에 걸쳐 마련한 ‘만불사 달맞이 산사음악회’는 “불교문화공연의 새로운 전형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불회는 이밖에도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포교·장학사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동국대 불교대학과 사학(寺學) 협력·장학금, 2008년에는 중앙승가대와 장학금 지원 협약을 체결해 각각 매년 1,0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들어서는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수계대법회 봉행했으며, 육군 3사관학교 법당인 호국사에 포교 활동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4. 현황과 미래

만불회는 만불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체계화된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불운동을 통해 근본이념인 ‘이상에도 걸림이 없고 현실에도 걸림이 없으며(理事無礙 事事無礙) 나도 이로우면서 남도 이로운(自利行 利他行)’ 화엄사상을 실천해가는 단체가 만불회이며, 만불이념을 현실세계에 펼쳐 보이는 원력도량이 영천 만불산 만불사입니다. 또 대구에는 만불회의 모든 업무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본부가 있으며, 대구와 부산, 서울, 마산 등 각 지역에는 포교원을 두어 전국적인 포교·실천운동의 기

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장례문화를 이끌고 있는 재단법인 만불지장회와 불교 문화사업을 담당할 재단법인 만불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만불신문사, 만불출판사, 만불TV MBS, BIC운영단, 다르마기획 등 문화사업을 통해 대중에게 만 불이념과 정신을 알릴 문화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불회는 앞으로 영천 만불산 외에 안성 만불산과 전라 만불산을 개산해 3산의 위용 을 갖추고, 기존 포교원 외에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제주, 춘천, 수원, 전주, 목 포, 충주, 강릉, 청주, 구미 등 전국 18개 지역과 해외에 포교원을 추가 개설해 명실 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고, 세계불교의 미래를 가꿔가는 불교단체로 발돋움해 갈 것입 니다.

5. 만불회 운동(智行改華)

만불회 운동은 견성성불에 있다. (文殊의 智)

견성성불운동은 문수의 지혜로 자신의 고귀한 본성을 깨닫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상구보리의 실체입니다.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지 자기 내면 속에 불성의 씨앗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견성이란 바로 자기 내면의 불성을 바로 볼 수 있는 경지를 의미합니 다. 성불이란 견성을 통해 불성의 씨앗을 틔운 상태를 말합니다.

만불회 운동이 왜 견성성불운동인가. 개인과 전체의 행복과 안락이 바로 견성에서 비롯되며, 문수의 지혜를 터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중생들이 탐진치 (貪嗔癡) 삼독심에 빠져 항상 무지와 무명의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견성성불운동이란 바로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보지 못한 자기 불성을 찾을 수 있도록 문수의 지혜를 깨닫는 수행이며, 나아가 자기 불성의 씨앗을 틔워 완전한 행복과 평안을 얻는 수행으로 인도하는 대중불교운동을 말 합니다.

만불회 운동은 보살행에 있다. (普賢의 行)

보살행은 보현보살의 행을 근본 요체로 하고 있으며, 문수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하 화중생의 시작입니다. 보살이란 부처님이 되고자 깨달음의 진리를 구하며 중생을

교화하여 자기와 남에게 이익 되는 일을 하는 사부대중을 의미합니다. 보살행은 상대방을 위해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바라밀행에서 출발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타난 행동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보살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살행은 커다란 원이 없으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포함한 남을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성취하겠다는 원력을 실천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자기와 상대방이 함께 이롭게 하는 행위(自利利他), 자기(현실)에게도 남(이상)에게도 걸림이 없는 행동(理事無礙事事無礙), 자기와 남이 함께 성취하겠다는 자세(自他日時成佛道), 모든 생명체가 성불할 수 있도록 원하는 마음(願共衆生成佛道)이 바로 보살정신이며, 이 보살정신이 만불회 정신입니다.

만불회 운동은 불교혁신중흥운동이다. (改)

만불회 운동은 불교혁신중흥운동입니다. 불교혁신은 유신과 개혁을 의미합니다. 혁신의 요체는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에 있습니다.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으로 내외적으로 왜곡되고 굴곡된 불교의 모습과 불교를 바라보는 잘못되고 편협된 인식을 바로 잡는 불사가 불교혁신운동입니다. 불교중흥운동이란 유신과 개혁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세계불교를 네트워크하여 불자 개인의 역량과 단체 및 각국의 불교의 힘을 모아 새로운 불교비전을 제시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불국정토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혁신중흥운동의 기초는 인드라마 구축에 있습니다. 인드라마이란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을 의미합니다. 불교계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조직적으로 연계하여 불교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게 하는 토대를 만드는 시간적 공간적 작업이 바로 인드라마 운동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인력과 원력(아이템), 그리고 인드라마를 운영할 수 있는 물적토대를 만불회가 제공하는 것이 불교 혁신이라면, 세계 각국뿐 아니라 국내의 개인과 단체의 불교역량을 하나로 모아 만불회가 세계불교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불교중흥입니다.

만불회 운동은 화엄만다라의 개화이다. (華)

만불회가 펼치는 화엄만다라 전개는 바로 존재의 가치를 개발하는 생명운동입니다. 탄생과 죽음 그리고 윤회와 인과의 틀 속에서 인간들은 반복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삶은 삼신(法身 報身 化身)의 세계로 정의한다면 화신의 세계이며,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것은 보신의 세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신으로부터 화신으로 현상에 나타난 그 진정한 생명체는 법신의 세계입니다. 법신의 세계는 생명력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신 화신이 세계를 펼쳐지는 것입니다. 만불회가 화엄만다라 실천 운동을 펼치는 것은 바로 생명력의 에너지를 찾아 모든 중생들이 존재가치를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존재의 가치는 지혜로서 깨달을 수 있으며, 지혜는 바로 불성의 싹을 틔운 경지에 이르면 얻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의 눈을 뜰 때 우보익생만허공(雨寶益生滿虛空: 모든 중생 유익토록 온 누리에 범비 내려)이 됩니다.

불보살 역대 조사 다례재 및 조상영가 천훈대재 봉행위원회 두손 모음

■ 만불회 · 만불사 연혁

* 주요 내용

- 1981. 경북 청도 사암연합회 결성
- 1983. 불교 신행단체 만불회 창립
영천 만불산 만불사 건립 구상(일만 부처님 모실 구상)
- 1987. 대구 만불회 포교원 개원
- 1988. 부산 만불회 포교원 개원
- 1989. 서울 만불회 포교원 개원
- 1991. 영천 만불사 부지 20만 평 확보
만불회보 창간호 발간
- 1992. 구상 10년 만에 경북 영천에 만불산 만불사 개산
- 1993. 스리랑카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전국 순회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60인 고승 초청 법회
- 전국 16개 지역에서 10년간 100만 불자 동참 성료
- 1993. 우리나라 최초 노천 1080 아미타부처님 점안
- 1994. 안성 만불산 부지 6만 평 확보
- 1996. 재단법인 아미타우스 설립(납골문화의 효시인 극락도량 부도탑묘 개원)
- 1997. 개산 10주년 기념 선지식 초청 법회
- 1998. 발원 10년 만에 만불보전 일만옥불 봉안·점안식 및 낙성식 봉행
- 1999. 만불신문 창간(1호 ~ 184호)
- 2007년 10월 13일까지 총 4,600,000부 발간
- 2000. 국내 최초 최대 황동와불열반상(14m) 점안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종교연합 화장 장려 세미나 개최
- 불교/유교/기독교/천주교 성직자 참석
- 2001. 재단법인 만불회 설립(문화관광부)
세계 최초 황동만불범종 타종 및 범종각 준공식

- 2002. 10만 인등 구현, 붓다가야 인등대탑 건립
- 2005. 만불출판사 설립
만불사 달맞이 산사음악회 개최 (총 6회)
- 2006. MBM 엔터테인먼트 설립
- 2007. BIC(Buddism Indranetwork Communication) 설립
- 2008. 만불TV MBS 설립
만불사 제1회 천훈대재 조상영가 천훈대재 봉행
제1회 만불사 세미나 ‘인간의 삶과 죽음의 번뇌’ 개최

* 포교·장학사업

- 2007. 동국대학교 불교대학과 사학 협력 체결
- 매년 장학금 1,000만 원씩 지원
- 2008. 중앙승가대학교와 장학금 지원 협약 체결
- 매년 장학금 1,000만원씩 지원
- 2008. 한국 최대 군 포교도량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수계대법회 봉행
- 2008. 육군3사관학교(충성대 호국사) 포교활동비 일부 지원

* 건물 신축

- 1993. 보현원 준공
- 1997. 관음전 준공
- 1999. 미타원 준공
- 2000. 극락정토원 준공
- 2005. 만불문화원 준공

* 출판 / 서적

- 1998. 12. 만불교전
- 2007. 1. 대교주 찬양가(운문 스님 찬불가사 모음집)

■ 국내·외 성지순례

* 국내 불교 성지 순례

일 시	성 지
1989. 10. 21 ~ 10. 24	백담사, 오세암, 봉정암, 낙산사 흥련암
1990. 1. 21	대흥사, 도갑사
1990. 3. 23 ~ 3. 24	정암사, 상원사, 법흥사
1990. 3. 30	통도사 금강계단
1990. 5. 27	법주사
1990. 7. 28 ~ 7. 31	백담사, 오세암, 봉정암, 대청봉, 신흥사, 낙산사
1990. 8. 26	대승사, 희방사
1990. 10. 13 ~ 10. 14	관룡사, 보리암, 용문사, 옥천사
1990. 10. 27 ~ 10. 30	제주도
1990. 11. 18	경주 남산, 불국사, 석굴암
1990. 12. 16	거조암, 은해사
1991. 3. 3	표충사, 석남사, 기림사 순례 및 방생법회
1991. 4. 20 ~ 4. 21	정암사, 법흥사
1991. 7. 27 ~ 7. 30	백담사, 오세암, 봉정사, 대청봉, 신흥사, 낙산사 월정사, 상원사
1992. 2. 16	표충사, 석남사, 기림사, 문무왕 수증릉
1992. 3. 16	동화사 석조 통일대불
1992. 8. 1 ~ 8. 4	백담사, 오세암, 봉정암, 낙산사, 월정사, 상원사
1994. 7. 29 ~ 8. 1	백담사, 오세암, 봉정암, 대청봉, 신흥사, 낙산사 월정사, 상원사
1995. 10. 9 ~ 10. 10	신흥사, 낙산사 흥련암, 월정사, 상원사
1998. 2. 8	삼사순례 및 방생대법회
1999. 2. 28. ~ 3. 1	기림사, 운문사

* 해외성지순례

일 시	성 지
1988. 1. 19 ~ 1. 22	인도 및 동남아시아
1989. 12. 2 ~ 12. 9	캐라미나 사원
1989. 12. 23 ~ 12. 26	고웅, 타이페이
1990. 4. 21 ~ 4. 24	일본
1990. 9. 8 ~ 9. 19	중국
1991. 1. 15 ~ 1. 27	인도, 네팔, 태국
1991. 4. 27 ~ 5. 4	미국LA서래사, 하와이 대원사
1991. 11. 16 ~ 11. 19	대만 불광사, 장안사
1992. 2. 1 ~ 3. 24	일본 나리따 성전사, 신승사, 아따미 온천, 하꼬네 미특산 영우회, 가마꾸라 원각사관음대불, 가마꾸라 대불, 효도교단석가전, 입승교성회
1992. 5. 7 ~ 5. 9	타이페이, 대만 불광사, 자향사, 고웅, 등청호, 해장사
1992. 5. 16 ~ 5. 20	일본성전사, 신승사, 미특산 영우회, 효도교단 원각사관음대불, 입정교승회, 교야산
1992. 10. 31 ~ 11. 15	인도, 네팔, 태국
1993. 2. 7 ~ 2. 11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식 및 스리랑카
1993. 2. 26 ~ 3. 5	일본, 대만
1993. 5. 7 ~ 5. 9	대만 불광사, 자향사, 해장사
1993. 12. 26 ~ 1994. 1. 9	인도
1994. 2. 21 ~ 3. 8	인도, 미얀마, 태국
1994. 6. 11 ~ 6. 13	대만 자향사, 불광사, 고웅 등청호, 정토동굴, 백의관음전
1996. 9. 10 ~ 9. 12	대만 불광사, 고궁박물관
1997. 3. 15 ~ 3. 23	유럽
1997. 5. 22 ~ 6. 6	유럽
2000. 1. 9 ~ 1. 17	인도성지순례

일 시	성 지
2000. 5. 16 ~ 5. 19	일본성지순례
2000. 5. 23 ~ 5. 26	대만 타이베이/불광산 성지순례
2000. 11. 11 ~ 22	중국불교성지순례
2001. 8. 14 ~ 8. 22	티베트성지순례
2002. 3.	대만 불광산 성지순례 (건축기행)
2002. 4.	인도 부다가야 성지순례 (건축기행)
2002. 6.	중국불교성지순례
2002. 9. 3 ~ 9. 11	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 성지순례
2003. 2. 25 ~ 3. 09	해남도/발리 성지순례
2004. 4. 19 ~ 4. 30	태국북부성지순례
2004. 7. 2 ~ 7. 11	실크로드 성지순례

■ 만불회 회원/만불사 신도 현황
(2008년 8월 현재)

만불회 회원 / 만불사 신도
576,602 가구
1,379,856 회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3,022 가구
	강동구	1,945 가구
	강북구	1,707 가구
	강서구	2,088 가구
	관악구	2,385 가구
	광진구	1,897 가구
	구로구	1,616 가구
	금천구	1,090 가구
	노원구	2,207 가구
	도봉구	1,464 가구
	동대문구	2,389 가구
	동작구	2,165 가구
	마포구	1,997 가구
	서대문구	1,701 가구
	서초구	2,461 가구
	성동구	1,903 가구
	성북구	2,406 가구
	송파구	3,010 가구
	양천구	2,086 가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224 가구
	용산구	1,340 가구
	은평구	1,773 가구
	종로구	1,345 가구
	중구	1,116 가구
	종각구	1,949 가구
	미구분	1,655 가구
소계		50,941 가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1,999 가구
	금정구	8,551 가구
	기장군	2,045 가구
	남구	8,149 가구
	동구	4,010 가구
	동래구	8,204 가구
	부산진구	12,762 가구
	북구	7,892 가구
	사상구	7,420 가구
	사하구	8,678 가구
	서구	4,373 가구
	수영구	5,132 가구
	연제구	6,505 가구
	영도구	4,712 가구
	중구	1,914 가구
해운대구	9,487 가구	
미구분	1,850 가구	

소계	104,683 가구
----	------------

소계	5,869 가구
----	----------

대구광역시	남구	7,590 가구
	달서구	18,782 가구
	달성군	4,102 가구
	동구	14,640 가구
	북구	14,567 가구
	서구	10,369 가구
	수성구	180,39 가구
	중구	4,322 가구
	미구분	1,283 가구
소계	93,694 가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134 가구
	계양구	639 가구
	남구	1,574 가구
	남동구	1,177 가구
	동구	330 가구
	부평구	1,689 가구
	서구	775 가구
	연수구	741 가구
	옹진군	11 가구
	중구	326 가구
	미구분	339 가구
	소계	7,735 가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2,407 가구
	동구	3,840 가구
	서구	4,371 가구
	유성구	1,504 가구
	중구	3,423 가구
	미구분	301 가구
소계	15,846 가구	

울산광역시	남구	11,326 가구
	동구	5,757 가구
	북구	4,307 가구
	울주군	5,748 가구
	중구	9,168 가구
	미구분	11 가구
	소계	36,317 가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877 가구
	남구	988 가구
	동구	884 가구
	북구	1,776 가구
	서구	1,099 가구
	미구분	245 가구

강원도	강릉시	1,966 가구
	고성군	191 가구
	동해시	1,127 가구
	삼척시	984 가구

강원도	속초시	279 가구
	양구군	392 가구
	양양군	172 가구
	영월군	429 가구
	원주시	1,414 가구
	인제군	109 가구
	정선군	194 가구
	철원군	222 가구
	춘천시	1,109 가구
	태백시	675 가구
	평창군	144 가구
	홍천군	335 가구
	화천군	93 가구
	횡성군	144 가구
미구분	38 가구	
소계	10,018 가구	

경기도	가평군	170 가구
	고양시	83 가구
	덕양	1,050 가구
	일산	51 가구
	일산동	598 가구
	서	782 가구
	과천시	317 가구
	광명시	1,232 가구
	광주시	627 가구
	구리시	780 가구

경기도	군포시	938 가구
	김포시	530 가구
	김해시	1 가구
	남양주시	1,330 가구
	동두천시	265 가구
	부천시 소사	637 가구
	오정	440 가구
	원미	1,102 가구
	성남시	125 가구
	분당	1,298 가구
	수정	1,129 가구
	중원	931 가구
	수원시	229 가구
	권선	973 가구
	영통	644 가구
	장안	1,085 가구
	팔달	1,245 가구
	시흥시	614 가구
	안산시	67 가구
	단원	595 가구
상록	754 가구	
안성시	891 가구	
안양시	117 가구	
동안	1,184 가구	
만안	1,173 가구	
양주시	432 가구	
양평군	185 가구	

경기도	여주군	314 가구	경상남도	양산시	5,268 가구	
	연천군	127 가구		의령군	796 가구	
	오산시	350 가구		진주시	6,179 가구	
	용인시	151 가구		진해시	3,002 가구	
	기흥	573 가구		창녕군	2,270 가구	
	수지	430 가구		창원시	8,273 가구	
	처인	573 가구		통영시	2,310 가구	
	의왕시	409 가구		하동군	1,116 가구	
	의정부시	1,514 가구		함안군	1,537 가구	
	이천시	630 가구		함양군	786 가구	
	파주시	986 가구		합천군	1,445 가구	
	평택시	1,871 가구		소계	62,801 가구	
	포천시	575 가구				
	하남시	587 가구		경상북도	경산시	10,051 가구
	화성시	600 가구			경주시	16,286 가구
	미구분	1 가구			고령군	1,153 가구
소계	34,259 가구	구미시	9,105 가구			
		군위군	1,214 가구			
		김천시	3,768 가구			
		문경시	2,397 가구			
		봉화군	554 가구			
		상주시	3,495 가구			
		성주군	1,868 가구			
		안동시	4,649 가구			
경상남도	거제시	2,180 가구	영덕군	1,711 가구		
	거창군	1,425 가구	영양군	627 가구		
	고성군	1,361 가구	영주시	2,729 가구		
	김해시	7,800 가구				
	남해군	753 가구				
	마산시	9,709 가구				
	밀양시	4,276 가구				
	사천시	1,670 가구				
	산청군	645 가구				

경상북도	영천시	9,502 가구
	예천군	1,719 가구
	울릉군	124 가구
	울진군	1,365 가구
	의성군	2,771 가구
	청도군	2,123 가구
	청송군	1,047 가구
	칠곡군	3,010 가구
	포항시	314 가구
	남구	10,804 가구
	북구	9,944 가구
소계	102,330 가구	

전라남도	영광군	248 가구
	영암군	128 가구
	완도군	109 가구
	장성군	230 가구
	장흥군	153 가구
	진도군	48 가구
	함평군	139 가구
	해남군	173 가구
	화순군	411 가구
	소계	8,687 가구

전라남도	강진군	192 가구
	고흥군	442 가구
	곡성군	164 가구
	광양시	944 가구
	구례군	444 가구
	나주시	435 가구
	담양군	293 가구
	목포시	502 가구
	무안군	192 가구
	보성군	233 가구
	순천시	1,306 가구
	신안군	64 가구
	여수시	1,824 가구
	여천시	13 가구

전라북도	고창군	292 가구
	군산시	988 가구
	김제시	634 가구
	남원시	725 가구
	무주군	299 가구
	부안군	375 가구
	순창군	159 가구
	완산구	3 가구
	완주군	430 가구
	익산시	1,276 가구
	임실군	220 가구
	장수군	257 가구
	전주시	84 가구
	덕진	945 가구
	완산	1,157 가구
	정읍시	448 가구

전라북도	진안군	200 가구
소계		8,492 가구
제주도	남제주군	17 가구
	북제주군	1 가구
	서귀포시	336 가구
	제주시	383 가구
소계		1,237 가구
충청남도	계룡시	201 가구
	공주시	1,337 가구
	금산군	970 가구
	논산시	1,774 가구
	당진군	379 가구
	보령시	487 가구
	부여군	626 가구
	서산시	725 가구
	서천군	287 가구
	아산시	1,030 가구
	연기군	919 가구
	예산군	575 가구
	천안시	1,845 가구
	청양군	429 가구
태안군	231 가구	
홍성군	504 가구	
소계		12,319 가구

충청북도	괴산군	320 가구
	단양군	510 가구
	보은군	745 가구
	영동군	1,168 가구
	옥천군	1,059 가구
	음성군	582 가구
	제천시	1,776 가구
	증평군	296 가구
	진천군	509 가구
	청원군	1143
	청주시	210 가구
	상당	2,526 가구
	흥덕	2,961 가구
	충주시	1,452 가구
소계		15,257 가구
외국거주	외국 거주	382 가구
소계		382 가구
주소 불명	주소 불명	5,735 가구
소계		5,735 가구
총계		576,602 가구

■ 수행 이력

학성 (學城) 스님

소임 : 대한불교조계종 종사
만불산 만불사 주지

* 현재

전국 만불회 회주
영천 만불산 만불사 주지
재단법인 만불회 이사장
재단법인 아미타우스 이사장
만불TV MBS 이사장
만불신문사 사장
만불출판사 사장
MBM 엔터테인먼트 회장
BIC(Buddhism Indranetwork Communication) 회장
사단법인 사명당기념사업회 부회장
사단법인 삼보불교음악협회 부이사장
불교대구방송 운영이사

* 이력

1973. 합천 해인사에서 봉주 대선사를 은사로 득도
1974. 합천 해인사에서 도견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76. 보은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78. 합천 해인사 승가대학 졸업(19회)
경북 청도 용천사 주지 취임(~1995)

- 1981. 경북 청도사암연합회 사무국장 취임
- 1983. 법무부 교화위원
- 1984. 육군 군종담당관
- 1985. 조계종 중앙교육원 10기 수료

■ 봉행사

“자리이타 대승보살도 실천의 날”



오늘, 이 청정한 도량 만불산에 수많은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모였습니다.

5,000만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 60억 인류의 지극한 마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보살 역대 조사 다례재 및 조상영가 천혼대재(영산재)’를 봉행하면서 ‘우란분절의 참뜻’을 생각합니다.

이 날은 목련 존자께서 지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어머니를 친히 구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맞으면 예로부터 불자들은 사찰을 찾아 ‘우란분재’를 올립니다.

목련 존자께 어머니를 구제하신 참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내 부모와 조상의 천도만을 바라셨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고통과 애착과 회한 때문에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일체 중생이 구제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겠습니까?

유주무주 조상영가와 전쟁의 와중에 희생된 사변영가,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 희생된 사태 영가, 각종 사건 사고로 죽어간 참사영가, 민주화를 위해 산화한 민주화운동 희생자 영가, 인간에 희생된 동·식물 영가, 조류독감, 광우병 등으로 살 처분된 동물 영가, 인간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죽어간 실험용 동물 영가가 고통과 회한, 분노와 원한, 삶에 대한 애착으로 괴로워하며 무명의 바다를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불보살 역대 조사 다례재 및 조상영가 천혼대재(영산재)’는 이 물음에 답하고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만불사는 매년 ‘불보살 역대 조사 다례재 및 조상영가 천혼대재(영산재)’를 봉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매년 우란분절에 즈음하여 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께 다례를 올리겠습니다.

불·보살님은 모든 중생의 귀의처입니다. 역대 조사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며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스승입니다. 그래서 다례를 올리는 것은 불자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세태는 불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회해야 합니다.

(선창에 따라 모두 함께)

·삼계의 도사(導師) 사생의 자부이신 불보살님을 항상 예경하고 찬탄하지 못한 것을 지심으로 참회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이으며 우리를 진리의 바다로 이끄시는 역대 조사님을 항상 예경하지 않음을 지심으로 참회합니다.

이 법회에 모인 만불사 사부대중은 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을 항상 예경하고 찬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만불사 사부대중은 온 불자들이 함께 예경하고 찬탄할 수 있도록 일불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둘째, 우란분절을 견성성불(見性成佛)의 의미를 일깨우는 날로 삼겠습니다.

우란분절은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며, 내 자신을 보는 날입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날이며, 자신의 삶을 바르게 돌아보는 날입니다. 견성이란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곧 견성성불을 뜻합니다.

‘제1회 만불사 세미나’ 주제를 ‘인간의 삶[生]과 죽음[死]의 번뇌’로 정한 것도 삶과 죽음의 불교적 의미를 되살피고 그 참의미를 깨닫자는 취지 때문입니다. 만불사는 매년 ‘삶’과 ‘죽음’의 불교적 의미를 돌아보는 세미나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우란분절을 자비 실천의 날로 삼겠습니다.

무자비한 상황 속에서 죽어간 영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국과 민족이 위태로울 때 한 목숨 아끼지 않은 호국영령과 순국선열, 민주화를 위해 산화해 간 민주영령, 사변과 사태와 참사로 희생된 수많은 영가,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희망과 번영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불자의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물질과 욕망에만 관심을 가질 뿐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지도, 극락왕생을 기리지도 않았습니다.

(선창에 따라 다함께)

- 유주무주 조상 영가가 애착을 벗고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지 않은 것을 참회합니다.
- 전쟁의 와중에 희생된 수많은 사변영가가 고통을 벗고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지 않은 것을 참회합니다.
- 정치적 사회적 혼란의 와중에 희생된 사태영가가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지 않은 것을 참회합니다.
- 각종 사건 사고로 희생된 참사 영가가 삶에 대한 집착을 벗고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지 않은 것을 참회합니다.
- 민주화를 위해 산화해간 민주화 운동 희생자 영가의 뜻을 이어받지 못한 것을 참회합니다.

우리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동식물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음식과 약으로 섭취하는 수많은 동·식물들, 실험용으로 희생되고 있는 동물들, 조류독감, 구제역, 광우병을 이유로 살처분된 수백만 수천만의 동물들, 그들은 남이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선창에 따라 다함께)

· 동·식물 영가가 인간과의 악연을 끊고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지 않은 것을 참회합니다.

· 살(殺) 처분 동물영가가 인간과의 악연을 끊고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지 않은 것을 참회합니다.

· 실험동물 영가가 인간과의 악연을 끊고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지 않은 것을 참회합니다.

이 법회에 모인 만불사 사부대중은 무자비한 상황 속에서 죽어간 유주무주 고훈이 극락왕생하기를 항상 기원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만불사 대중은 여러 불자님들과 함께 앞으로 자비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만불사는 ‘만불사 세미나’와 ‘불보살 역대 조사 다례재’, ‘영산재(조상영가 천혼대재)’를 매년 우란분절에 즈음해 봉행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란분절이 5,000만 대한민국 국민, 나아가 세계 60억 인류와 더불어 부모와 조상영가는 물론 온 우주의 모든 유정 무정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자리아타(自利利他)의 대승보살도를 실천하는 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밝은 사부대중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기원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2(서기 2008)년 8월 9일(토)

대한불교조계종 종사 **학성** 합장
영천 만불사 주지

■ 상단권공

영산회상 부처님을 모시고 상단 부처님께 권공(勸供, 공양을 올리는 의식)하는 절차로, 영산재에 동참한 일체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설하여 중생들이 깨우침은 물론 불보살의 가피력으로 고훈(孤魂, 영혼)은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살아있는 중생은 해탈 및 성불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하는 절차이다.

■ 육법공양

여섯 가지 공양 올리오니 님처럼 성불하게 하소서!

8월의 푸름이 온 세상을 적시는 시방 저 편, 시작도 끝도 없는 삼세의 한 시점에서 영겁의 지층을 흔드는 개벽의 진동 속에 오고감에 바로 그 자리 그대로인 당신을 우려합니다.

당신은 카필라에서 탄생하셨고, 마갈타에서 성도하셨으며, 바라나에서 설법하시고,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성으로 올리는 이 공양은 가난한 이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이며, 방황하는 이에게 안정을, 고통스러운 이에게 기쁨을 함께 나누고져 오늘 이 여섯 가지 공양을 올리나이다.

1. 먼저 촛불을 올리웁니다.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야말로 미혹한 중생에게 지혜의 광명을 나투신 깨달음과 같고,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무상의 법문이옵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자비로 거두어 주소서!

2. 다음은 향을 올리웁니다.

청정한 기운이 천지에 감돌아 모든 생명이 맑고 깨끗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유로운 미래이옵니다. 계향 정향과 혜향 해탈향과 해탈지견향의 향기가 뭉게구름처럼 법계에 두루 퍼지게 하여, 시방세계에 한량없는 삼보님께 공양하옵니다.

3. 이어서 꽃을 올리겠습니다.

한 송이의 꽃을 피우듯 스스로 삶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 부처님께 올리우고, 중생들의 가슴에 부처님 당신의 마음으로 자비의 종자를 심는 공양이옵니다.

찬란한 기쁨으로 내 혼에 대한 눈물의 뿌리까지 다 태워 진하게 피워 올린 한 송이 연꽃으로 당신 전체를 숨쉬고 싶은 오늘 모자람 없이 이루게 하소서, 나의 가장 푸른님이시여!

4. 계속해서 헌 편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리는 이 한 그릇의 정성어린 떡은 몸과 마음이 고요히 선정에 들어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실천하여 늘 기쁨으로 충만한 넉넉한 삶을 지향하는 공양이옵니다. 외롭고 배고픈 이웃들에게 거룩하고 밝은 빛 가득히 넘치게 하소서 !

5. 다음은 ‘보리심’의 열매를 상징하는 과일공양을 올립니다.

중생이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고 번뇌에서 벗어나 육방에 예배하면 이 세상에나 다음 세상에서 항상 안락할 것이라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그러므로 씨앗에서 시작하여 열매로 그 결실을 보듯 “깨달음의 열매” 청정한 과일을 올리웁니다. 만물이 풍성해지는 이 태양의 계절에 법계의 모든 중생들을 위한 해탈의 열매도 푸른빛을 더하게 하소서 !

6. 끝으로 열반의 차, 헌다를 하겠습니다.

지극히 고요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이제 청정수 감로다를 삼보님께 올리오니 자비로 거

두어 주옵소서. 한마음 함께 기울여 시방삼세에 항상 계옵신 부처님께 예경하옵니다.

우러러 살피옵건데, 진여의 태양은 찬란히 빛나옵고 법성의 바다는 끝없이 넓고 깊어 온 중생 온 국토를 윤택하게 하시며, 위없는 보리공덕 총만케 하신, 일체중생 근기 따라 나아가니 가없는 은덕을 어찌 다 헤아리오리까?

원하옵건대 저희들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에서 청정수가 흐르듯 무애의 법으로 번뇌를 씻고, 지혜와 복덕을 닦아 당신처럼 되고져 오늘을 살게 하소서.

한모금의 청정차로 당신 모두를 숨쉬고 싶은 오늘, 넉넉함으로 이루게 하소서 !

당신처럼 성불하게 하소서!

茶禮와 薦度の 노래

고규태 / 시인

1. 제불보살님 前
2. 역대조사님 前
3. 유주무주 조상영가 前
4. 사변영가 前
5. 사태영가 前
6. 참사영가 前
7. 민주화운동 희생자 영가 前
8. 인간에 희생된 동식물 영가 前
9. 살처분 동물영가 前
10. 실험용으로 희생된 동물영가 前

■ 지은이 소개

시인 고 규 태 (高圭兌)

* 이력

- 1959년 전라남도 화순 출생
- 전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 1984년 시전문지 『민중시』 제1집 '신인'으로 시인 등단
- 1889년 시집 『겨울 111호 법정』 등 간행
- (사)한국작가회의 회원, 시분과 간사 역임

* 주요 작품

- 〈서산마애불〉 〈삼보일배의 노래〉 〈다시 동두천〉 〈회문산〉 〈나팔꽃의 노래〉 〈모처럼 향기롭습니다〉 〈화정동 노을〉 등 시 200편 이상 발표
- 333행 장시 〈만불산〉 발표
- 5.18민주화운동 장시 〈들불7열사〉 발표
- 불교노래 〈삼경에 피는 꽃〉 〈천년와불〉 〈설산매화〉 〈무소의 뿔처럼〉 〈길〉 〈딩동댕〉 〈허공의 새여〉 등 다수 작사
- 환경노래 〈도요새〉 〈우리는 하나〉 〈갯벌사랑가〉 〈열목어 한 마리〉 〈나는 강이 되리니〉 〈아침노을〉 등 다수 작사
- 민주/통일노래 〈전진하는 오월〉 〈민주, 너를 부르마〉 〈묶인 몸 묶인 세월〉 〈하늘길〉 〈통일을 이루자〉 등 다수 작사
- 현, 10,000행 대작장시〈須彌山 萬佛山〉 집필중

* 경력

- 「국민일보」 심의팀장, 기획팀장 역임
- 인동출판사 주간 및 대표이사 역임
- (사)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 기획본부장 역임

1.

제불보살님 前

이 자리 만불산 사부대중
이리도 산처럼 모여 일으키네 꽃
이루네 滿佛

산문의 용천수 유난히 맑고 푸르고
함께 님을 맞는 설레는 날에
저마다 몸과 마음 여미는 날에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아미타 약사여래...부처 부처님
문수 보현 관세음 지장...보살 보살님

다즉일체로 나투신 제불보살 님하

님은 마하, 크고 커서 그러할
님은 마하반야, 모남도 끝도 없어 그러할
님은 반야바라밀, 우리 저 언덕 가며 그러할

뜻이 그러하오매 오늘
예경 드리고 공양 올리오니 받으시라

그 가르침 되새겨 한 삶을 다짐하오니
앞생각과 행 어두웠으나
뒷생각과 행은 밝을지이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자리행 이타행 걸림없이 행할지이다

남북은 평화로 통일로 영호남은 화합으로
전세계 유정무정 두루 껴안을지이다

2.

역대조사님 前

향기로워라 이 도량
소리 소리를 넘어 고요하여라 산

여기, 다례의 一心
萬心으로 받들어 님을 맞이하나니
다향은 저 수미산까지

하여 이 꽃장엄 만불산에
중중무진으로 오신 역대조사 님하
언어도단 불립문자로 오신 님하

님은 승-, 승은 법이요 법은 불
불은 나-, 나의 눈뚫이기에 나무 佛·法·僧

과한 욕심 그러한 따위 부질없음을
헛된 분별 그러한 따위 소용없음을
니탓 네탓 그러한 따위 쓸데없음을

그러하매 내가 스스로 눈을 뜨고
무자비에서 자비로 꽤히 나아가려네

하오나 역대조사님 한 말씀도 없으시네
우리를 향하여 다만,
할 !

이제부터는 우리도 삼독을 벗고
그렇게 그렇게 다만,
할 !

3.

유주무주 조상영가 前

모였다 흩어지는 건 구름
맺혔다 스러지는 건 이슬
육신 휘감은 증생의 길도 그러함에

한몸 받아 왔다가 가시었네
생노병사의 강물 흐르어
세간 인연 다함에 생사 나뉘었네

하온데 가다가 어디메
하온데 가다가 어이해 뒤를 돌아보시나
호호불호 이승의 정 그리 깊으신가

유주무주 조상영가여
제행은 무상 생자는 필멸
그 길에 아미타 아미타- 님이 계시니

귀의하여 무명업장 떨치시라

아미타 아미타 나무아미타불-
영가 위해 님의 명호 부르고 부르나니
번뇌 미련 모든 집착 다 놓으시라

공수거, 님의 손을 잡고 훨
공수거, 참회하여 청정 이루사 훨 훨
극락에 왕생하사 육도윤회 훨훨 벗어지이다

아미타 아미타 나무아미타불...

4.

사변영가 前

- 호국영령, 순국선열, 전쟁 희생자

가로막는 칼산, 끓는 화탕 속으로
남 떠밀긴 쉬워도 내가 나서긴 어려운데

돌아보니 보이네, 흥망의 고비마다
한 몸 던져 나라 구하고자 한
호국 순국의 거룩한 자취 보이네

돌아보니 또한 보이네
自와 他, 我와 敵, 선부른 분별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징집 소집 동원되어

아, 6·25사변- 숨겨둔 400만의 숨결숨결
격전지 영천전투 포화 속의 남녀노소
57년 만에 드러난 경북 백자산 양민학살

찢긴 청춘의 강제징집, 종군위안부
귀무덤 코무덤의 임진년 백성들 보이네

못 잊혀 겨레의 산하를
못 잊어 피붙이의 언저리를
근심 걱정으로 떠도는 영가들

빛나는 혼이여 애달픈 사변의 넋이여

이제는 나라 지킴도 평화 펼침도
산자들의 몫, 우리가 행할지니

영가여, 잊고 가시라 님의 등불 따라
가시어 극락원 이루시라

5.

사태영가 前

평화로이 수미산 바라보고 싶었으나
피로 물든 거리 거리

위쪽만 말고 나란히 잘 살자 했으나
총구 아래 쓰러진 목숨들

파아란 마음 갖고 순하게 살았으나
붉은 누명을 쓴 양민들

한 생각 헛 탐욕에 나라 하나가 먹잇감
오시는가, 티벳의 영가

한 생각 헛 분노에 제 백성이 피범벅
오시는가, 미얀마의 영가

한 생각 어리석음에 섬과 동네가 불바다
오시는가, 제주 4·3과 거창골 영가

나만 옳다는 神國들의 복수와 복수
겉 다르고 속 다른 洋國軍의 웅단 폭격
외면 속에 굶다가 돌아간 黑國들의 아사자

그러한 모든 영가 예 오시었으니
받으소서 우리들의 마음
풀어버리소서 그 원과 한을

오늘부터는 고운 님과의 동행길

극락 누리에 가시어
높게높게 다시 태어날지이다

6.

참사영가 前

달 가리켜 달을 보매 국경 없어라
중국 쓰촨성 지진 참사 속에
저 미얀마 싸이클론 속에
내 목숨 있어라

달 가리켜 달을 바라보매
대구지하철 참사와 경북 봉화 산사태 속에
인도네시아 해일과 일본 미국의
지진 홍수 속에 내 목숨이 있어라

뗏목 타고는 뗏목 버리매
我相 없어라 와르르 삼풍백화점 안에
화산 폭발 치솟는 용암 안에
와르르 저 성수대교 위에 내가 있어라

참사 참사 참혹한 참사
영가 영가 안쓰런 영가

한순간 별안간에 떠난 몸인지라
고별다운 고별도 못했느니
움켜진 집착도 놓을 겨를 없었느니

오늘 이 만불산에서
헌향의 연기 따라 어여삐 고별할지이다
다 버리고 천도길 편히 떠날지이다

으깨진 육신 벗고 극락왕생 하실지이다

7.

민주화운동 희생자 영가 前

꽃밭엔 아직 꽃이 듬성듬성
민이 호가 되는 꽃밭은 허전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눈
조금은 보게 됐습니다, 4·19 있었기에

그래도 우리의 귀
조금은 듣게 됐습니다, 광주 5.18 있었기에

부모가 자식의 장례를 치른 날들이여
젊은 아내가 더 젊은 아내를 장송한 날들이여

서로의 가슴 뜨겁게 느끼며
오해 털고 화합으로 나아가는 영·호남이여

그래도 우리의 입
조금은 열렸습니다, 6월 항거 있었기에

비명횡사에서 의문사까지
밀실의 고문사에서 광장의 직격탄사까지

빛나간 권력의 탐진치에 맞서다
하나의 목숨 앗긴 여럿의 민주영령 위하여

향을 피웁니다
마음 모읍니다
산자들이 다시 촛불을 켭니다

하오니 부디 극락왕생
지지 않는 큰 꽃밭 찬란히 일구소서

8.

인간에 희생된 동식물 영가 前

주고 받았습니다, 그대의 것
뿌리면 뿌리 싹이면 싹 잎도 즐기도
공중의 열매 씨앗까지도

아니오 준 것은 없고
우리가 그대의 온몸 다 앗았습니다

주고 받았습니다, 그대의 것
토실한 살이면 살, 피면 피
물렁하면 물렁뼈 굳세면 굳센 뼈까지

달면 단 대로 안창살 토시살
쓰면 쓴 대로 쓸개까지

아니오 준 것은 없고
그대의 온몸 우리가 다 앗았습니다

내 힘 내 웃음 눈물에마저 그대 있어
희와 樂 哀怒에마저 그대 있어
우리, 여기, 이렇게, 살고 있나니

이 산에 이르러 무심 거두고
그 고마움에 합장합니다
허리 굽힙니다

극락왕생 하시라
인간들이 모여 큰절 올립니다

9.

살처분 동물영가 前

당신-, 닭 오리 개 돼지 소 염소...
당신-, 금계 오골계 장끼 메추리 칠면조...

당신들은 숫자로만 잠시 나에게 왔다가
순식간에 생매장을 당했네

긴급 살처분, AI 의심 150,000 마리
또 살처분- 반경 500m 120,000 3km 263,000

포크레인과 구덩이, 하얀 포대자루로만 잠시
내 눈 스치다가 이내 잊혀져 갔네

108만 마리, 420만 마리, 1천만 마리

함께 묻히기 전
무정의 계란이 유정의 인간에게 묻더이다
이뭐꼬 이게 뭐꼬?

함께 죽어가기 전
오리 한 마리 오도송처럼 외치더이다
뉘탓 누구 탓 우리네 탓?

조류독감 구제역 광우병을 이유로
살처분당한 동물 영가여

당신님 탓 아니기에 고개 숙이나니
자연의 법 거스른 우리 인간들 탓이기에
부끄러움으로 참회의 향 사르나니

고이고이 극락왕생 하여지이다

10.

실험용으로 희생된 동물영가 前

그랬습니다, 우리는
본의는 아니으나 실험의 이름으로 밤낮으로

연구의 명목으로 임상외 구실로 사계절
치료의 일편 예방의 수단으로 수년 수십년

축생이라 하여 미물이라 하여
그대들을 찌르고 자르고 가르고 토막내고
저미고 여미고 먹이고 굶기고

그제는 병 주고 어제는 약 주고
오늘은 어찌 됐나 관심을 주고
그리곤 싸늘히 식혀 내다버렸습니다

사람 대신 사람노릇 하다 제명 못 살고
갔습니다, 쥐 토끼 개 원숭이 그리고 그리고

전생에 내 친구였을지도 모를
더 전생에 내 형제였을지도 모를
더더 전생에 우리 어머니였을지도 모를

동물영가들이여, 어서 오시어 공양 받으시라
고운 님 손잡고 극락왕생 꼭 그러하시라

만불산 사부대중 이리도 산처럼 모여
영가들께 오늘 이러이 천후대재 올리나니

우란분절 맞아 일으키네 꽃 이루네 萬佛
도량에 온누리에 화엄의 꽃 피어나네 *

■ 찬불가

1. 바람 부는 산사

아무것도 없는 종이 위에 산은 그려도 바람은 바람은 그릴 수 없어
벽을 향하여 참선하는 님의 모습 그려도 마음은 마음은 그릴 수 없네

솔바람 이우우우 잠을 깨우는 산사의 바람소리가 들릴 뿐 마음은 그 어디에도 없어라
내 영혼 깊은 곳을 적시는 산사의 바람소리 산사의 바람소리

해 저물고 달이 뜬 산사에 가냘픈 촛불이 바람에 바람에 꺼질 듯이 흔들리고
달빛이 창문에 배이니 소나무 그림자 파도처럼 파도처럼 출렁이네

솔바람 이우우우 잠을 깨우는 산사의 바람소리가 들릴 뿐 마음은 그 어디에도 없어라
내 영혼 깊은 곳을 적시는 산사의 바람소리 산사의 바람소리

2. 청산은 나를 보고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 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세월은 나를 보고 덧없다 하지 않고 우주는 나를 보고 덧없다 하지 않네
번뇌도 벗어놓고 욕심도 벗어놓고 강같이 구름같이 말없이 가라하네

3. 왕생극락의 노래

뿔뿔 같은 이 세상에 목숨으로 뿌리내려 곧은 줄기 추스려서 목마름도 달래었고
푸른 바람 받아내려 연잎으로 실었거니 왕생극락 하신 날에 연화대에 오르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저 하늘 한 장 구름 이는 것이 삶이라면 깊은 물 달그림자 잠긴 것이 죽음이라
구름과 달 그림자 본래 실상 없는 것을 한줄기 푸른 연기 열반경에 드옵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4. 향심

마음에 먹물 들이고 모든 것 다 바치렵니다
마음에 먹물 들이고 모든 것 다 드리렵니다
찬란한 당신 말씀에 두 귀 기울이며 오로지 님의 진리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가녀린 마디마디 손끝마다 흐르는 이 향연 님을 향하는 자세로 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우러러 합장하게 하여 주소서 님이시여 님이시여 당신께 원하옵니다

마음에 먹물 들이고 모든 것 다 바치렵니다
마음에 먹물 들이고 모든 것 다 드리렵니다
가득한 당신 모습에 두 눈 감고서도 오로지 님의 사랑만 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가녀린 마디마디 손끝마다 흐르는 이 향연 님을 향하는 자세로 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우러러 합장하게 하여 주소서 님이시여 님이시여 당신께 원하옵니다

5. 연꽃 피어 오르리

청아한 한줄기의 연꽃송이 피어오르니 만다라화 향내음이 시방세계 두루하네
그 향기 맡는 이는 마음마다 연꽃 피어 사바의 속진 번뇌 모두 다 사라지고
이르는 곳곳마다 연화장세계로세
아 연꽃이여 청아하고 아름다워라 내 마음 연꽃같이 영원히 피어나리

중생의 무명번뇌 무시겁 내려오며 한없이 쌓이어서 본래청정 잊었다네
연꽃에 피어남은 천진모습 일깨워서 깨끗도 더러움도 가까이 아니하고
자신의 본래마음 그대로 지켜주네
아 연꽃이여 청아하고 아름다워라 내 마음 연꽃같이 영원히 피어나리

6. 어머니님

어머님은 생명의 나라 어머니님은 평화의 고향 어머니님은 어머니님은 사랑의 주모
고량진 얼굴에 검버섯 타다 남은 가슴 시리고
저린 손발 꿈속에서도 꿈속에서도 눈물짓는 내 어머니님
나 다시 아이되어 울고만 싶어 나 다시 아이되어 울고만 싶어
부르면 멀어져만 가고 생각하면 외로움만 더해
은혜와 사랑의 정 모자라 눈 못 감으신 어머니님
이아들에 죄업 저승간들 어머니님을 어떻게 어떻게 뵈을까요 어머니님 어머니님 어머니님

7. 산은 산 물은 물이로다

깨달음 뚜렷이 널리 퍼지니 고요함과 없어짐은 둘이 아니도다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관음이요 들리는 소리마다 묘한 진리로다
아 그대는 아느뇨 산은 산 산 산이요 물은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 물은 물이로다

8.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저 이제 발원하오니 이 원을 들으소서
나무아미타불 중생의 이 원을 들어주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자비하신 부처님 저 이제 합장하오니 가피를 내리소서
나무아미타불 중생의 이 원을 들어주소서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9. 고운 님 잘 가소서

정든 우리 고운 님 멀리 떠납니다만 마음이야 어찌 보내오리까
잘 가소서 부디 편히 가소서 보내는 이 자리 섭섭함 마음 감추고서
웃으며 보내오니 우리 잊지 마소서
고운 모습 어디가 계셔도 그림계 한 마음 하나로 있습니다
연꽃같이 밝으소서 우리 고운님 우리 고운님

10. 우리도 부처님같이

어둠은 한순간 그대로가 빛이라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무명을 거두고 우주를 밝히는 이제는 가슴깊이 깨달을 수 있다네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같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원망은 한순간 모든 것이 은혜라네 지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나누는 기쁨을 맛 볼 수 있는 이제는 여실히 깨달을 수 있다네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같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 의식곡

사흥서원

최영철 작곡

장중하게
mp



중 생 을 다 건 지 오 리 다

mf



번 뇌 를 다 끊 으 오 리 다

mp



법 문 을 다 배 우 오 리 다

mf



불 도 를 다 이 루 오 리 다

영산재 (조상영가천혼대재)

1. 유주무주 조상 영가
2. 사변 영가
3. 사태 영가
4. 참사 영가
5. 민주화운동 희생자 영가
6. 인간에 의해 희생된 동·식물 영가
7. 살(殺) 처분 동물 영가
8. 실험용으로 희생된 동물 영가



만불산 만불사
www.manbulsa.org

■ 영산재

영산회상 불보살님께 올리는 공양의식

영산재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도량을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모든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함께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의식이다.

그러므로 영산재는 공연이 아닌 장엄한 불교의식이다. 즉, 삶과 죽음으로 갈라진 우리 모두가 불법 가운데 하나가 되어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하며, 부처님 전에 행하는 최대 최고의 장엄한 불교의식이다.

1. 시련(施輦)

영산재를 진행하기 위하여 도량 밖에 마련된 시련터로 나아가 연(輦)에다 불보살 및 천도할 영혼을 청해 모시는 절차이다. 즉 재도량(齋道場)에 불보살 및 영혼 등의 인도를 맡은 나무대성인로왕보살의 인도 아래 칠보로 장엄된 청개홍개(靑蓋紅蓋)와 보개산(寶蓋傘)으로 좌우에 호위하여 재가 모셔질 도량으로 모셔오는 절차이다.

2. 대령(對靈)

일체의 영혼에게 상단 부처님 전에 나아가기 앞서서 무명(無明)과 업보를 깨우칠 수 있도록 불법을 일러주는 절차이다.

3. 관욕(灌浴)

일체 중생이 살아 생전 삼독(三毒,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더럽혀진 업장을 부처님의 불법과 진언으로 없애고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목욕

의식이다.

4. 조전점안(造錢點眼)

영혼으로 하여금 저승세계(명부세계)에서 지낼 수 있도록 금은전(金銀錢)과 경함(經函)을 점안 및 이운하는 의식이다.

5. 신중작법(神衆作法)

영산재 본 의식인 상단권공 진행에 앞서서 불법(佛法)을 수호하며 법회가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도량을 옹호하는 신중을 봉청하는 절차이다.

6. 괘불이운(掛佛移運)

야외에 영산재를 봉행하기 위해 특별히 괘불단을 설치하는 절차이다.

7. 상단권공(上壇勸供)

영산회상 부처님을 모시고 상단 부처님께 권공(勸供, 공양을 올리는 의식)하는 절차로, 영산재에 동참한 일체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설하여 중생들이 깨우침은 물론 불보살의 가피력으로 고훈(孤魂, 영혼)은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살아있는 중생은 해탈 및 성불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하는 절차이다.

8. 식당작법(食堂作法)

영산재에 동참한 일체 대중은 물론 그 외 모든 영혼에게 부처님의 법식(法式)을 베푸는 절차이다. 즉 부처님의 제자로서 과연 공양물을 받을 만한 몸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공양의 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지옥, 아귀, 축생에게도 인연의 굴레에서 벗어나 깨우칠 수 있도록 공양을 베푸는 의식이다.

9. 운수상단권공(雲水上壇勸供)

중단권공의식을 하기 앞서 상단 불·보살 전에 권공하는 의식이다.

10. 중단권공(中壇勸供)

명부의 지장보살, 도명존자, 무독귀왕과 십대명왕을 청해 각 권속들에게 권공하는 절차이다.

11. 신중퇴공(神衆退供)

상단 불보살님 전의 공양을 마치고 신중 전에 권공하는 의식이다.

12. 관음시식(觀音施食)

시식(施食)이란 일체 영혼에게 공양을 골고루 나누어 먹인다는 의미이다. 관세음보살 대비주의 신통력을 의지해 지옥에서 고통 받는 지옥 중생을 삼독심을 버리고 불, 법, 승 삼보에 귀의시키는 절차이다.

13. 봉송(奉送) 및 소대의식(燒臺儀式)

재(齋) 도량에 봉청한 모든 분들을 돌려보내 드리는 절차로 상단의 불보살, 중단의 신중, 하단의 고힌 순으로 봉송해 모신 후 소대로 나아가 봉송하는 절차이다.

■ 법성계

의상 조사 법성계
義湘 祖師 法性偈

법성원융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적 무명무상절일체 증지소지비여경 진성심심극미묘
法性圓融無二相 諸法不動本來寂 無名無想絕一切 證智所知非餘境 眞性甚深極微妙

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다중일 일즉일체아즉일 일미진중합시방 일체진중역여시
不守自性隨緣成 一中一切多中一 一卽一切多卽一 一微塵中含十方 一切塵中亦如是

무량원겁즉일념 일념즉시무량겁 구세십세호상즉 잉불잡난격별성 초발심시변정각
無量遠劫卽一念 一念卽是無量劫 九世十世互相卽 仍不雜亂隔別成 初發心時便正覺

생사열반상공화 이사명연무분별 십불보현대인경 능인해인삼매중 번출여의부사의
生死涅槃常共和 理事冥然無分別 十佛普賢大人境 能仁海印三昧中 繁出如意不思議

우보익생만허공 중생수기득이익 시고행자환본제 파식망상필부득 무연선교착여의
雨寶益生滿虛空 衆生隨器得利益 是古行者環本際 ?息妄想必不得 無緣善巧捉如意

귀가수분득자량 이다라니무진보 장엄법계실보전 궁좌실제중도상 구래부동명위불
歸家隨分得資糧 以陀羅尼無盡寶 莊嚴法界實寶殿 窮坐實際中道床 舊來不動名爲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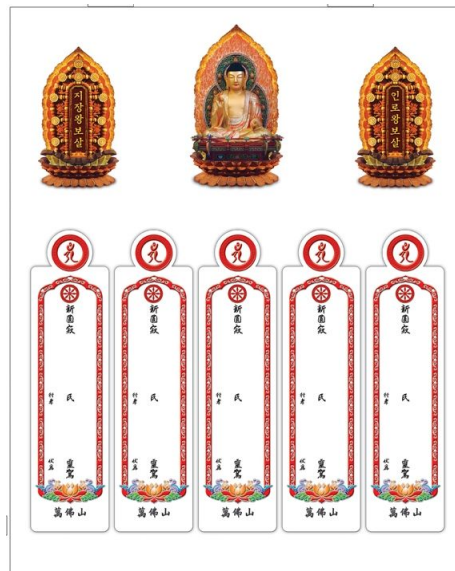
구래부동명위법 구래부동명위승
舊來不動名爲法 舊來不動名爲僧

조상영가 천혼대재 동참 안내

조상영가 천도 기도비	20,000원
조상영가 위패 (1위 당)	5,000원

*영가 조끼에 망자의 이름을 쓴 후 착용하고 천혼대재에 동참합니다.

*천혼대재를 모신 영가조끼 위패는 인도 갠지스강에 가서 소대합니다.



영가조끼